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1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음 6월 6일) 제20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오늘은 '초복'
바쁘디 바쁜 삼계탕 전문점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세 번의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초복'. 17일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위치한 삼계탕집에서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먹기 위해 물려든 손님들을 맞이하는 직원들이 불판을 쉴 틈 없이 가열하며 삼계탕을 끓이고 있다.

남원서 폭염으로 80대 남성 숨져

폭염대비 건강관리 '주의'

전북도 "오후에 실외활동 자제... 충분한 휴식·수분 섭취해야"

전북도는 지난 16일 남원에서 폭염으로 인해 84세 정모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폭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올해 전북도에서 처음이며, 119를 이용 남원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병원 도착 시 환자의 체온이 39°C 이상 상승하는 등 증상이 열사병으로 추정되어 주치의가 온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특히 7월은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운 여름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예보를 고려하여 실외활동을 계획하여야 하며 폭염이 집중되는 오후(12~18시)에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실외 작업을 하는 경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장시간의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며 "폭염에 취약하여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노년층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익산패션단지, 뿌리산업 특화 지정

시, 산통부에 지정신청 후 심의 등 거쳐 3개월여 만에
기업 협업 등 국비 지원 가능... 도내 세번째 지정 쾌거

익산 패션단지 IKSAN-U 주얼리 특화단지 산업통상부 주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익산시를 포함해 4개 단지를 지정했다. 익산시와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는 지난 3월 30일 산업통

상자원부에 지정신청을 한 후 단지 역량, 뿌리기업 집적화 및 협동화,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와 현장 및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약 3개월여 만에 IKSAN-U 주얼리 특화단지로 지정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유턴기업관련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의 집적화, 협동화 계획이 우수하게 평가된 결과로, 향후 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스템, 폐열회수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이나 공동혁신과제의 기획,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등의 공동 혁신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IKSAN-U 주얼리 특화단지 지정으로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

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전북도의 뿌리산업정책에 발맞춰 주얼리관련 뿌리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뿌리산업은 주소,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의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말하며 익산은 완주과 혁신산업연구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전북도내 세 번째 뿌리산업 지정의 쾌거를 이뤘다.

/익산=우병희 기자

미륵사지유물전시관
9월 2일까지 연장개방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2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장개방은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찾는 관람객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설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연장개방 기간 중에도 전시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전시관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여름 밤 노을이 붉게 물든 익산 미륵사지를 거닐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시관 관계자는 "보물로 지정된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 등 수준 높은 문화재를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바로잡습니다

본보 7월 17일자 9면에 게재한 '8년 동안 평가위원회 구성 0회 배짱'과 관련, 기사 부제목과 내용 등에 쓰여져 있었던 '용인한우프라자'를 '용인농특산물 직판매장'으로 정정합니다.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

문희상 의장 "연말까지 개헌안 도출"

국회는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17일 경축식을 거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경축식에는 문희상 20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 한병도 정무수석,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KBS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문 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제헌 70주년의 의미를 언급하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며 "이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문희상(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국회 의장과 이낙연(오른쪽 여덟번째) 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참석 내빈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혹한의 그 겨울, 광장에 섰던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유용태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오늘날 우리 헌법은 북핵 위협과 미국 한반도 평화 체제의 가능성이라는 얼핏 모순돼 보이는 두 측면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남북한 대화, 협상도 헌법과 법령의 틀 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우리 헌법이 당연지사로 규정하고 국민이 의문 없이 받아들여 온 가치가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내부의 인식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짚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인식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70년을 이어온 헌법적 가치의 선 그룹에 손댈 수는 없다"면서 "법 만들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되새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축식에서는 문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정세균 전 의장에게 국민헌장을 전수했다. 또 이상민·김병태 원로 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도 수여했다. /뉴시스

Made in Xi

당신을 떠올리면, 자이가 생각납니다

늘 가족의 행복이 우선인 사람,
남보다 앞선 내일을 사는 사람,
당신을 생각하면
자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앞선 행복은 자이로 기억됩니다